

아이누어의 자음과 음절구조*

— 한일어의 비교와 관련하여 —

김 공 칠**

〈 차 례 〉

1. 머리말	3.1 기본구조
2. 자음	3.2 음절표
2.1 초성자음	4. 한일어와의 관련
2.2 초성자음에 대한 논의	4.1 한국어
2.3 종성자음과 그 논의	4.2 일본어
2.4 어중중자음	4.3 알타이어
2.5 자음변이	5. 맺는말
3. 음절구조	

1. 머리말

아이누어의 모음은 현재로서는 5모음 체계지만 여러 방면에서 보이는 모음의 變種과 모음조화의 흔적으로 볼 때 先代에 5모음 이상의 것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한 바 있다(김공칠 1996).

그렇다면 모음의 전후에 위치하여 모음과 함께 成節되는 자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음의 경우는 모음과는 달라서 어느 언어든 系列的으로 안정적인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다만 次元과 序列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모음의 경우도 일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안정적인 2系3序체계로 낙착되어 있는 점에서 자음의 경우도 기본적인 조음점에 상응한 5系체계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미루어 볼 수 있다.

과연, 오늘의 아이누어의 자음이 실지로 그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궁금하다. 게다가 현재의 한국어, 일본어의 자음체계는 계열적으로 비슷하더라도 서열적으로는 한국어는 무기·유기·경음의 3序조직이며, 일본어는 무성·유성의 2序조직인데, 이들과 아이누어가 어떤

* 이 논문은 1997년도 제주대학교 국외파견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거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인가가 궁금하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한국어는 內破자음을 終聲으로 지니는 폐음절 구조이며 일본어는 음성적으로는 그러한 內破자음을 지니면서 음운적으로 그것을 종성으로 해석하지 않는 개음절 구조인 점에서 아이누어의 음절구조가 과연 어떤 것이며 이들의 구조와 어떻게 상관되는 것인가도 궁금하다.

또한, 필자의 가정대로 이들 세 언어가 같은 계통의 언어로 묶어지는 것이라면(김공철 1980) 알타이어와의 자음 대응의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룬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이들에 관한 소박한 의견을 하나의 시안으로 삼아서 되도록 이들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2. 자음

2.1 초성자음

Batchelor(1905)에서 예시된 자음을 조음방법의 구분에 따라 재배치하면(단 Batchelor의 ch는 c로 고침).

	A	B
파열음	p	b(book의 b)
	t(영어의 t와 d의 사이)	d
	k(keep의 k, 가끔 kh	g(good의 g, 가끔 gh, kh)
마찰음	h(house의 h)	
	s	
	j(yes의 j)	
	w(what의 w)	
파찰음	c(church의 ch)	
유음	r	

비음 m
 n

이제 이들 음의 음성적 실현과 그에 대한 음운적 해석을 가한다면, 앞에서 A에 대한 B는 自由異音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濁音의 음운적 대립이 없음을 뜻한다. A, B 중에서 Batchelor는 A를 無標로 B를 有標로 본 것 같다. 金田一(1931:7)도 발음이 좋은 노파들은 철두철미 깨끗한 清音만으로 발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濁音의 示差的 대립이 없기 때문에 kanto로 발음하거나 gando로 발음하거나 '天'의 뜻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을 無標로 보느냐에 대하여는 清音쪽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p, t, k의 어중 실현에서도 Horobecu방언, Higasi sizunai방언의 경우 b/p, d/t, g/k 어느 것도 가능하나 무성음쪽이 더 많고(Simeon 1968:15),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 清音을 더 쓰고, 소홀한 발음, 술 취한 이의 발음에는 늘 濁音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清音쪽이 無標임에 틀림없다. 또한, 무성음이 비음에 후행할 때 순행동화되어 유성음화되는 것을 보면 濁音은 有標쪽이다.

tampe '이것' → tambe ante '두다' → ande
ranke '내리우다' → range

$$\begin{bmatrix} -\text{cont} \\ -\text{str} \end{bmatrix} \rightarrow [+ \text{voiced}] / \begin{bmatrix} +\text{nasal} \\ +\text{ant} \end{bmatrix} \text{ ——— } [+ \text{voiced}]$$

B항을 음성적 실현의 異音으로 본다면 위의 b, d, g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h/는 조건이음 x(Sakhalin방언에서), ç, ø(Hiratori방언에서는 자유이음. eg. hure/fure '赤', Simeon 1968:16)으로 나타난다(Sakhalin방언에서는 종성위치에서 x가 나타난다).

h → ç / ___ i

h → ø / ___ u

u 앞에서 들리는 \emptyset 는 순수한 순음이어서(Batchelor 1905:11), 원래 p음에 유래했을지 모르지만, 현대의 일본어의 경우처럼 h의 이음으로 다룬다. 모음 사이에서는 가끔 약하게 되어 유성음화되어 fi로 나타난다.

/s/의 경우 [s]와 [ʃ](흔히 sh로 표기)의 구별이 분명치 않다. Batchelor(1905:32), 金田一(1931:9)에 의하면 sa/fa, so/fo, se/fe, su/fu 는 자유이음 관계에 있다. 그래서, s와 ʃ는 같은 음운으로 보고 있으며 후자는 전자의 구개음화로 본다(金田一外 1936:2). 그렇다면, i모음 앞에서는 오로지 ʃ밖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i앞의 ʃ는 전적으로 조건이음이다.

s → ʃ / ____ i

j와 w는 초성 위치에서는 上昇的 이중모음에서의 on-glide음이지만, 下降的 이중모음의 off-glide음으로도 존재한다. 이 음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음절구조상 종성자음으로 해석한다. 金田一·知里(1936:2)에서는 y와 w를 마찰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c는 흔히 ch(Batchelor 1905:13)로 표기하는 음으로 [ç]이다. 일본어에서는 c는 -i 또는 -y 拗音節 그리고 -u에 선행하는 자음으로만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처럼 아이누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든 모음 앞에 선행하므로 일반음절의 초성으로 내세운다(이하의 例語에서 *표를 붙인 것은 Batchelor 1905에서 확인된 것이다).

casi 柵	ca 柴	*can 약한	eci 너
cise 家	cip 舟	cup 月·太陽	cuk 秋
cupka 東	cep 魚	*ceka 지붕	*ce 家
*cok 아래	*corus 蠅	cotca 刺	

이 c가 t에서 유래하지 않는 것은 tu:cu의 대립에서 알 수 있다.

cak 飛散 : tak 塊

cuk 秋 : tuk 生長

cup 月·太陽 : tup 移

그러나, ta행의 i단에서는 구개음화되기 때문에 ca행의 i단 ci [tʃi]와 동일하게 된다.

이 /c/에는 ts, dz, ɕʒ, ʒ 등의 자유이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maci '妻'의 발음을 maʃi/maʒi/matzi/maɕʒi 의 어느것으로 발음해도 아무런 의미상 차이가 없다(Batchelor 1905:30)

cise '家'도 ʃise, tsise, ɕʒise로 발음해도 상관없다. caca '나이 많은 이'도 tsatsa, dzadza 등으로 발음된다. 이 때의 ts에는 구개음화의 기미가 있다. 이들 자유이음은 개인이나 방언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아 중요치 않게 여긴다(金田一 1931:12).

유음은 r 하나이다. l보다 r에 가깝고 어두에서는 t, d, r의 중간음이다. 그 중간음을 D로 나타내면,

$$r \rightarrow D/ \# \underline{\quad}$$

n다음에는 d로 실현된다.

$$r \rightarrow d/n \underline{\quad}$$

k, p, t 다음에는 무성의 r로 실현된다.

$$\left[\begin{array}{l} +\text{con} \\ +\text{voc} \end{array} \right] \rightarrow [+voiced] / \left[\begin{array}{l} +\text{cont} \\ -\text{str} \\ -\text{voiced} \end{array} \right] \underline{\quad}$$

r자음은 후행자음에 역행동화되어 t, n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음운동화 참조).

비음에는 ŋ 음이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어두에는 물론 없다. 그러나 어중에서 n이 -k 앞에서 (nk : enki, enku, inki) ŋ 이 자유이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어말에서도 n의 이음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n \rightarrow \eta / \text{---} \begin{bmatrix} k \\ \# \end{bmatrix} \text{ (임의적)}$$

아이누어에서도 이와 같이 어중에서 간혹 η 이 실현되지만, 일본어에서 보이는 어중 -g음의 η 음화는 없다.

n은 i앞에서 조건이음 \acute{n} 으로 실현된다.

$$n \rightarrow \acute{n} / \text{---}i$$

Horobecu방언에서는 e 앞에서 구개음화되는 경우가 있다. n^yep(Simeon 1968:19)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초성자음을 정리해서 음운과 이음으로 크게 나누고 그것을 각각 조음방법 별로 구별지으면 다음과 같다.

	음운		이음	
	무성	유성	무성	유성
파열음	p			b
	t			d
	k			g
마찰음	h		x ç φ	
	s		f	
		j		
		w		
파찰음	c		ts	dz dʒ ʒ
유음		r	r	D
		m		
비음		n		ń η

이렇게 보면 아이누어는 음운적으로는 자음이 아주 간단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는 여기서의 ㄹ이 음운화되어 있다(단 D와 ㄹ 제외하고).

2.2 초성자음에 대한 논의

초성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이른바 제로음소 인정 여부다. 服部(1964)에서는 어두모음 앞에서의 후두파열음 ?을 인정하고 독립된 자음음소로 인정하고 있다. 淺井(1969:772)에서도 이러한 음성적 특징을 인정하고 있으나 독립된 자음음소로는 다루지 않았다.

어중에서도 선행음절이 개음절의 경우는 성문폐쇄로 나타나는 점에서 그러한 특징이 수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성적 특징을 제로음소로 인정하는 것은 음성적으로는 a행 모음의 발음이 다소의 긴장성 곧 성문폐쇄음이 선행한다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이 어중에 자음음소와 그것에 후행하는 모음 사이를 그대로 연음하여 동일한 음절을 이루거나, 끊어서 별개의 음절을 이루거나 하는 대립성이 있기 때문이다.

moy'onne 소용돌이치다(千歳方言) (cf. moyonne 沙流方言)

또, 구조적으로 a행 이외에는 자음이 선행하고 있으므로 a행도 제로의 자음음소가 선행한 것으로 보면, 초성+중성의 cV체계 형식으로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표기의 편의상 일일이 제로음소를 표시하지 않고 어중에서 絶音되는 경우만 적는 게 보통이다. 대개 선행음절이 폐음절인 경우 그것에 이어지는 모음은 連音이 되므로 제로음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w, y 자음으로 끝날 경우 거기서 絶音되는가 拗音化되는가 하는 갈림길이 있게 된다.

다음으로, w, y를 반모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반자음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반모음의 경우는 모음 앞에서는 on-glide음으로서 후행모음과 함께 上昇的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그런데 아이누어에는 일본어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拗音節은 존재하지 않는다.

kja	kju	kjo	gja	gju	gjo
sja	sju	sjo	zja	zju	zjo
cja	cju	cjo			

이 중에서 sja, sju, sjo는 sa행의 sa, su, so와 異音관계에 있다. 이로 미루어 s-ja, s-jo, s-ju와 같은 반모음적 해석보다는 sj-a, sj-o, sj-u와 같은 반자음적 해석이 맞는 듯 싶다. 또한, cja, cju, cjo는 음운적으로 ca, cu, co로 해석되는 만큼 이 역시 반자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w, j음은 모음 다음에서는 off-glide음으로서 下降的 이중모음을 이루지만, 앞에서 아이누어에는 拗音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맞물려서 하강적 이중모음의 경우도 이를 重母音으로 보지 않고 선행의 主母音에 후행하는 말자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이누어의 초성자음은 p, t, k, h, s, c, j, w, r, m, n, '의 12개 인데, 그 중에서 종성으로 겸용되는 것은 p, t, k, s, m, n, r의 7개이며, c, h, j, w, '는 제외된다. 여기서처럼 w, j를 종성으로 해석하면 거의 모든 초성이 종성으로 겸용되는 것이 되어(모음으로 끝난 것은 ' 또는 -h) cVc 구조의 일관성을 지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종성 위치에서의 w, j를 반모음 또는 반자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u, 또는 i모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cVc구조의 해석을 위해서는 제로음소를 선행시켜야 하는(결과적으로 絶音的으로 발음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wa행의 w拗音節은 wa, -, -, we, wo가 존재한다. Horobecu방언과 Higasi sizunai방언에서는 산발적으로 ko→k^wo '만일'과 같이 순음화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에서의 kafi '菓子'→k^wafi의 경우와도 같다.

2.3 종성자음과 그 논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누어의 초성 12 중에서 종성으로 쓰이는 것은 7개이다. 7개의 minimal pair를 보여면,

ap	釣針,	at	紐,	ak	弟,	as	立,
am	爪,	an	在,	ar	走		

이 중에서 -p, -t, -k, -m, -n의 발음은 한국어 그대로이며, -s는 일반적으로(사전에) -시의 약한 음(사전에는 小字 シロ)으로 알고 있으나 필자의 직접 청취로는 약한 -스음이었다. 연구자들이 모두 -시로 쓰니까 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어쨌든 한국어의 본래의 사받침 음가의 추정에 참고된다고 본다.

나머지 5개 중에서 w, j도 해석에 따라 종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자음교체에서도 확인된다.

w → m/n	_____	an wa	'있고' → an ma
n → y/	_____ s	an se	'(나)끓어지다' → ay se
n → r/	_____ r	sini an rusuy	'쉬고 싶다' → ay rusuy
n → y/	_____ y	an yakun	'~이면' → ay yakun

w, y를 자음으로 봄으로써 자음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w, y 이외에 -c에 대해서는 -t와 中和되지 않았나 싶다. 종성 -s는 일반적으로 ㅅ로 의식하듯 -s와 ㅅ의 구별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c도 ㅅ로 나타난 흔적이 보인다. 어말의 -t가 구개음화한 배나 다름없다. 끝 s가 어말에서 ㅅ로 나타나듯 어말의 t가 ㅅ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aci / matci / matzi '妻'

초성 전용의 ?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치고, 초성 중에서 종성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h만 남는데(c도 中和되었다면 c까지),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에서 잠재적으로 延音的 종성 노릇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음절의 1음절어는 다른 음절에 비해 길게 들리는데(金田一外 1936:1), 이는 어말 h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을 의식적으로 짧게 발음한다 해도 의미에는 변동이 없다.

ka '絲' (kah의 가정)	mi '着' (mih의 가정)
nu '聞' (nuh의 ")	ya '網' (yah의 ")

복합어의 前項의 경우는 반드시 짧게 발음되는데, 이는 하나의 어중 제로음소의 促音化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다.

ka-eka '실을 꼬다'	ya-oske-p '蜘蛛', '그물을 짜는 것'
a-mi-p '옷', '우리가 입는 것'	nu-re '듣게 하다', '알리다'

아이누어 명사의 人稱形(具體形)에서 나타나는 h음도 어말 h음의 재생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아이누어의 종성 중에서 특이한 r에 대해 알아보겠다. 종성으로서의 r는 Batchelor(1905)에서 빠져 있다. 그것은 관찰의 대상의 언어가 Sakhalin에서 건너온 아이누어였기 때문이다. 金田一(1970:15)에서는 북해도 방언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餘音이 따른다.

Batchelor	金田一	실지발음
koro '持'	kor	(o의 餘音이 따른다)
nukara '見'	nukar	(a의 餘音이 따른다)
kara '作'	kar	(a의 餘音이 따른다)
araki '來'	arki	(a의 餘音이 따른다)

다. Sakhalin방언에는 종성자리에 -p, -t, -k, -r, -c가 올 수 없다. -c가 올 수 없는 것은 북해도방언도 마찬가지므로 결국 Sakhalin방언과 북해도 방언의 공통종성은 s, m, n이고 특유하게 북해도 방언에 없는 h가 더 있는 셈이다. h와 s는 매우 가까운 점에서 저해음의 종성으로 h 하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이게 古形일 수 있다. 다만 r음(후발달자음)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개음절형이 新形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r의 개음절형의 어떤 것은 古形으로 볼 수있다고 한다(服部 1967). 예컨대, Sakhalin 방언의 raru '眉'가 古形으로 생각되는 것은 북해도방언의 rar '眉'의 그 구체형이 raru이기 때문이다.

r종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이는 知里幸惠이다(cf. 金田一 1970:22). 곧, Bachelor가 제시한 koro '持'와 poro '大'에서 전자는 r內破의 kor, 후자는 그대로 r外破의 poro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첫째 mokor'an '나 자다', poro-an '많은'처럼 모음 후속에서의 구별이 있고, 둘째 akon nispa '내 남편', akot tures '내 누이'에서는 外破音 위치에서의 교체(역행동화)가 있는데, poro nai '大川', poro to '大沼'에서는 그러한 교체가 없고, 셋째 명사접미사 -p '것'는 말모음에서는 -p, 말자음에서는 -pe가 붙는데, korpe '갖는 것', porop '큰 것'과 같이 구별되는 데 있다. 넷째, 이들에게 어두모음 음절이 후행했을 때 kor an, poro an 처럼 엄연히 어느쪽도 탈락 혹은 첨가하는 일 없이 그래도 구별되는 것이다.

북해도 방언에서의 r종성의 예는 앞에서 제시한 바 있거니와 이와 병행해서 모음 후첨형이 물론 있는 것이니 poro '大', para '廣', sara '開', kere '觸' 등등이 그것이다.

r종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은 off-glide모음이 따른다. 선행모음에 따라 a, u, i의 여운이 있다. 다른 종성의 경우는 p, t, k는 아직은 한국어 종성 발음과 같다. 일본인에게는 구별이 어려워하는 듯 보였다. 지금의 일본어처럼 앞으로 促音으로 中和될지도 모를 일이다. s는 약한 ʃ(실지는 sw) 한 가지로 쓰고 있으나, -r의 경우가 여러개의 모음 첨가형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Batchelor는 모음첨가형으로 들은 것이다. 이는 개음절화의 한가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어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Refsing 1986:69). 어쨌든 이들 餘音모음을 음운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실지 발음은 모음첨가형이다. 지금 표기되고 있는 것 중에는 일본어식으로 청취해서 기록한 것도 없지 않다고 본다.

북해도 방언에서 종성으로 쓰이는 파열음 -p, -t, -k(때로는 -s, -r까지도)가 Sakhalin방언에서는 어말에서 후두마찰음화하는 경향이 있다.(金田一 1938:2, 金田一 1970:19)

	북해도방언	Sakhalin 방언
	ak '弟'	aχ
	mak '後'	maχ
	kap '皮'	kaχ
a 다음	itak '云'	itaχ
	mat '女'	maχ
	at '楡'	aχ
	uras '雪'	urah
	kut '帶'	kuχ
u 다음	nup '野'	nuχ
	rup '海'	ruχ
	repunkur '外國人'	repenkuχ
o 다음	kot '窪'	koχ
i 다음 (ç)s 로 변화한다)		
	sik '目'	siç > cis
	cip '舟'	ciç > cis
	nit '棒·柄'	niç > nis

이상을 보게 되면 어말의 -p, -t, -k(때로는 s, r도)는 h로 中和되고서 -i모음 앞에서는 ç로 실현되었다가 s구개음화되고 나머지 모음 앞에서는 χ로 실현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 Sakhalin방언에서는 종성목록에 비음 m, n은 있지만, 북해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ŋ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m, -n이 k(혹은 g)앞에서 ŋ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mom '흐르다' moŋga /momka/ '흘리다'
 ren '잠기다' reŋga /renka/ '잠기게 하다'

또 다음과 같이 -n이 p(혹은 b)앞에서 m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ani '가지다' amba /anpa/ '가지다'(복수)
 pon '작다' pompe(pe것) /ponpe/ '어린 애'
 pon menoko '少女' pom menoko
 tan-pe '이것' tampe
 tan matkaci '이 少女' tam matkaci

심지어 ni음절 자체가 同化한다.

hopuni-pa '飛' *hopum-pa (pa 복수접미사)/hopun-pa

이들 현상은 마치 일본어에서의 특수음소 /N/이 후속하는 음성환경에 따라 -n, -m, -ŋ으로 실현되는 것과 비슷하다. 다르다면 선행음이 비성절음이라는 점이다.

$$\begin{bmatrix} -\text{syll} \\ +\text{nas}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alpha \text{ ant} \\ \beta \text{ cor} \\ \gamma \text{ back} \end{bmatrix} / \text{ ______ } + \begin{bmatrix} -\text{syll} \\ \alpha \text{ ant} \\ \beta \text{ cor} \\ \gamma \text{ back} \end{bmatrix}$$

그러나, Sakhalin방언에서는 -n과 -m을 독립음소로 인정하는 한 -n과 -m이 -k앞에서 ŋ으로 바뀐다는 규칙으로 충분하다

$$\begin{bmatrix} -\text{syll} \\ +\text{nas} \end{bmatrix} \rightarrow [+back] / \text{ ______ } + \begin{bmatrix} -\text{syll} \\ +back \end{bmatrix}$$

2.4. 어중중자음

아이누어에서의 r종성의 특이성은 다음에서 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자음 앞에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는 Sakhalin방언에서 m, n, ŋ이 일본어에서처럼 /N/으로 中和되는 듯한 현상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자음이 겹치는 (1)의 예) 곧 북부방언에서 内破音 k, t, p, s가 후행 저해음에 同化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일본어에서 음성적인 -k, -p, -t, -s종성이 /T/로 中和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 | | | | | |
|-------|----------------|-------------------|----------|-------|
| 1) kk | akkari ~보다(比較) | sat-ke | → *sakka | '말리다' |
| pp | horippa '춤추다' | tuk-pa | → tuppa | '자라다' |
| | | mitpo | → mippo | '孫' |
| tt | atte '걸다' | mak-ta | → matta | '뒤에' |
| | | ap-to | → *atto | '雨' |
| | | sap(나가다)-te(使役어미) | → satte | |
| | | sapte | → *satte | '낮추다' |

이는 앞에서 본 바가 있는 /N/ 中和현상과 같은 다음 예들과 평행하는 점에서 가능한 하나의 음운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 | | | |
|----|--------|----------|
| mm | mimmim | '하나씩 찢다' |
| nn | nonno | '꽃'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어중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앞서와 같은 中和的 해석은 곤란하다.

- | | | |
|----|---------|------|
| tn | nupetne | '밝은' |
| sn | pisne | '해안' |

어중 子音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

pk nepka '무언가'	pt marapto '祭'
	cf. maratto '熊祭, 犧牲祭'
ps tapsutu(hu) '肩'	pn nepne-yakka '무엇이라도'
tp mitpo '손자'	tc katcam '형편'
tk satke '말리다(乾)'	ts petsam '강가'
kp akpe '뿔'	kt nucaktek '행복'
kn anakne '는(조사)'	kr ek rusuy '오고 싶다'
sp nospa '쫓다. 따라가다'	sk niskur '구름'
sr isram '가난한 이'	
mk emko '半'	ms *humse '소리를 내다'
mn sisamni-neyakka '외국인도'	
nm tapan Mopot kotan '이 Mopot 村'	nr cinru '雪靴'

위를 보게 되면 pr, tr, sr, mr 등이 안 보이는 것처럼 r가 다른 자음의 직후에 겹치는 예가 잘 없다. r가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끝 -rt-는 -tt- 또는 -nt-로, -rn-은 -nn-으로, -rr-은 -nr-로, -rc-는 -tc-로 교체한다(후술).

-ns-도 -ys-로, -ny-도 -yy로 교체한다(후술).

m도 pm, tm, km, sm 이 안 보이는 것처럼 다른 자음에 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음 배열의 하나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어중중자음의 示差性은 다음의 단자음과의 대립에서 확인된다.

ine '넷의'	inne '人數가 많다'
ota '沙'	otta '~에서'
sina '묶다(縛)'	sinna '다르다'
sine '하나의'	sinne '~되어서'
tane '지금'	tanne '길다'

2.5. 자음변이

아이누어에서도 동일형태소의 음운변이가 있고 형태소 사이의 결합 경계에서 음운변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두 요소 사이의 결합도가 높은 경우(명사+조사, 동사+조동사, 연체수식어+명사)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 음운교체

m : n *nismu : *mismu '외롭다'

n : r ani : *ari '~로써'
*siroma : sinuma '彼'

m : p pana : *mana '塵'
makiri : *pakiri '小刀'

k : s ikka : *iska '흠치다'

k : c *kor(o)pok : cor(o)pok '아래에'
miki : mici '父'(Hiratori방언과 Higasi Sizunai
방언에서, Simeon 1968:15)

Horobecu방언에서는 여기서의 s : h교체는 임의적 자유이음으로 의식하는 듯 싶다(Simeon 1968:13)

p : c (북부방언에서)

par : car '口'

papus : capus '唇'

kapan : kacan '꺼리다'

upas kama : ucas kuma '옛 이야기'

2. 음운도치

aske-pet : aspeket '손가락'

*icaniw : *icanwi '鱒'

cupkes : *cukpes '下腹'

3. 음운異化

kor rusuy : kon rusuy '가지고 싶다'

mokor rusuy : mokon rusuy '자고 싶다'

4. 음운탈락

$$u \rightarrow \emptyset / _ + \left\{ \begin{array}{l} a \\ e \\ u \end{array} \right\} \quad \begin{array}{l} ku \ ek \rightarrow \ kek \quad \text{'내가 왔다' } \\ ku \ uk \rightarrow \ kuk \quad \text{'내가 받는다' } \\ ku \ ani \rightarrow \ kani \quad \text{'나' } \end{array}$$

$$\left\{ \begin{array}{l} e \\ a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 +p _ \# \quad \begin{array}{l} poro-pe \rightarrow \ porop \quad \text{'큰 것' } \\ ahun-pa \rightarrow \ ahup \quad \text{'들어가다(복수)' } \\ \text{※예외 } ku-kor-pe \quad \text{'내 것' } \end{array}$$

$$\begin{array}{l} n \rightarrow \emptyset / n + _ \\ iew \rightarrow \emptyset / n _ \\ h \rightarrow \emptyset / n + _ \left\{ \begin{array}{l} i \\ e \end{array} \right\} \end{array} \quad \begin{array}{l} wan \ niw \rightarrow \ wan \ iw \quad \text{'열 사람' } \\ tu \ niew \rightarrow \ tu \ n \quad \text{'두 사람' } \\ an \ hine \rightarrow \ anine \quad \text{'~하고 있어서' } \\ pon-hekaci \rightarrow \ ponekaci \quad \text{'小童' } \end{array}$$

5. 음운첨가

음운으로서의 拗音節은 존재하지 않지만 형태소의 경계에서 w, j행 음절이 실현된다.

$$\emptyset \rightarrow w / u _ \left\{ \begin{array}{l} e \\ o \end{array} \right\} \quad \begin{array}{l} uepeker \rightarrow \ uwepeker \quad \text{'民話' } \\ uosurpa \rightarrow \ uwosurpa \quad \text{'이혼하다' } \end{array}$$

$$\emptyset \rightarrow y / i _ \left\{ \begin{array}{l} o \\ u \end{array} \right\} \quad \begin{array}{l} i-omap \rightarrow \ iyomap \quad \text{'아이들을 사랑하다' } \\ iutani \rightarrow \ ijutani \quad \text{'절굿공이(杵)' } \end{array}$$

6. 음운동화

앞에서 비음末音 -m, -n이 후행 자음에 역행동화하는 현상 혹은 /T/말자음을 가정했을 때 후행 자음에 역행동화되어 그와 동일한 자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을 보았다. 이외에 同化의 예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예거하면,

n → y/___ + s

pon seta → poy seta '小犬'

pon suma → poy suma '小石'

r자음 또는 음절의 후행자음에 역행동화되는 경우가 현저하다.

r → t/___ t

oar '쫄적으로' → oat tennep '갓난애'

or → ot teeta '아주 옛날'

ku kor toy → ku kot toy '내 토지'

mosir ta → mositta '지역에서'

r → t/___ + c

ku kor cise → ku kot cise '내 집'

r → s/___ s

oar (i)san → oassam '쫄혀 ~ 없다'

3. 음절구조

3.1. 기본구조

아이누어의 음절구조는 기본적으로 cVc구조이다. 초성 c- 및 종성 -c는 각각 1개만 허용되고 cc- 또는 -cc의 경우는 없다. 실지 관찰로

는 다음 네 가지 타일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두를 음운적으로는 cVc 구조로 해석한다.

- 1) V
- 2) cV
- 3) Vc
- 4) cVc

1)의 경우 cVc로 해석할 때 c-는 ' , -c는 ' 또는 h이다.

2)의 경우 cVc로 해석할 때 c-는 모든 자음이며 -c는 1)의 경우와 같다.

3)의 경우 cVc로 해석할 때 c-는 ' 이며 -c는 -p, -t, -k, -s, -r, -m, -n, w, y이다.

4)의 경우 2)의 c-의 경우와 3)의 -c의 경우와 같다.

Sakhalin방언의 경우는 cVc구조에 대립되는 cVV(c)의 구조가 더 있다. 이는 동일모음의 연속의 長音節이 된다. 곧 음의 장단이 음운적 대립을 이룬다. 이는 현대일본어와 공통된 현상이다.

초성 c-는 북해도방언과 동일하나 종성 -c는 -s, -m, -n, -w, y, h 의 6자음에 한정된다. 곧 북해도방언에서 보이는 -p, -t, -k, -r는 안 쓰이며 대신 -h가 감당하고 있다. -r는 -h가 되기도 하고 모음첨가되기도 한다.

3.2. 음절표

'	'a	'i	'u	'e	'o
k(g)	ka	ki	ku	ke	ko
s(f)	sa	si[fi]	su	se	so
t(d)	ta	ci	tu	te	to
c(č, č)	ca	ci	cu	ce	co
n(ŋ)	na	ni[ŋi]	nu	ne	no

p(b)	pa	pi	pu	pe	po
m	ma	mi	mu	me	mo
w	wa	—	—	we	wo
y	ya	—	yu	ye	yo
r	ra	ri	ru	re	ro
h(ç, φ)	ha	hi[çi]	hu[φu]	he	ho

위에서 ()안의 것은 자유이음, []안의 것은 조건이음이다.

현대일본어에서는 다음이 성립하지 않는데,

ti, tu
ca ce co
wi wu we wo
yi ye

아이누어에서는 다음만이 성립하지 않는다.

ti
wi wu
yi

t는 i앞에 선행하지 않고 ci가 대신하고 있는데 이 ci는 t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retar ciri '白鳥'에서 retat ciri로 바뀌는데 이는 ci가 원래 t-라는 전제하에서 역행동화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wu, yi는 사실상 類音 중복이므로 제외시키면 wi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되어 아이누어의 음절은 그만큼 典型的이고 保守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單調性을 띤 것은 음운적으로 일본어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拗音節이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kja kju kjo
 sja sju sjo
 cja cju cjo

그도 그럴 것이 sa행에서는 자유어음으로 나타나고, ca행은 따로 行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ka행에서는 ikia aynu '그 사람'과 같이 拗音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ika와 같이 모음 i를 탈락시킴으로써 拗音節化를 회피하고 있다. 拗音을 만드는 경우에도 i와 a사이에 y를 삽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4. 한일어와의 관련

4.1. 한국어

중세의 훈민정음(東國正韻도 마찬가지로) 초성체계는 저해음이 全淸, 次淸, 全濁의 3關枝로 되어 있다. 次淸, 全濁이 후발달음으로 본다면 全淸 k t p c s, 次淸 h, 여기에 不淸不濁의 n, m, ' , r, ŋ, z가 기본이 된다고 하겠다. 체계상으로는 아이누어에 없는 ŋ와 z가 더 있는 셈이지만 고대에는 ŋ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z는 s에 대한 유성음임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아이누어의 자음체계와 일치하는 셈이다.

魏志東夷傳 韓條의 地名, 三國史記地理志 地名, 향가 어휘에는 음운으로서의 ŋ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김공철 1981).

또한, 필자가 재구한 원시한국어의 자음체계는 다음과 같이 무성음과 향음계열이었다(김공철 1995 : 93).

p t c s k h
 m n r
 w y

이도 앞서의 아이누어의 초성체계와 일치한다(제로음소를 제외하

고).

중세어 종성체계는 원칙적으로 終聲復用初聲(訓正)이지만, 실지로는 八終聲可足用(訓正解例 終聲解)으로 初聲·終聲通用八字(訓蒙字會凡例)에서도 확인된다. 訓民正音諺解本, 初刊杜詩諺解, 訓蒙字會에 쓰인 것은 k t p s (이상 全淸), ŋ n m r (이상 不清不濁)의 8음이다. 아이누어에 비해서 ŋ이 더 있는 게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대한국어에는 /ŋ/는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일치하는 셈이다.

아이누어에는 r음이 특이하다. 음가가 t, r의 중간음이며, 한국어에서는 어두에 안 쓰이는데 아이누어에서는 쓰이고 있다. 종성의 r는 t 앞에서 t로 바뀌는 점에서 t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東國正韻의 한자음 표기에서 入聲인 t의 r에의 弛緩化를 以影補來하는 편법의 연유와도 상응한다.

七 翫 八 覽 月 彔 日 彔
末 覽 室 諫 節 諫

한국어의 중세어 음절구조는 cVc의 三聲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음 단독의 경우는 단독으로 成節되지 못하고 제로음소의 初聲(喉音 不清不濁 o)을 선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한자의 경우는 초성, 종성이 없는 경우 반드시 제로의 o를 加하도록 하였다.

고유어 아 어 오 우 ……
한자음 異 彔 四 諫 御 彔
古 公 其 諫

이는 전래적으로 음절관념이 아이누어와 마찬가지로 cVc였음을 말해 준다. 그래서 한국어나 아이누어가 cVc 음절경계에서의 자음접변현상을 공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2. 일본어

현대의 일본의 초성체계는 무성·유성의 대립이 있는 체계이다. 아

이누어에는 이러한 대립은 없다. 고대에는 일본어에도 이러한 유무대립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당초에는 동일한 체계였다고 하겠다. 곧 무성음과 비음, 유성만을 想定했을 때, p, t, k, c, s, h, ' , m, n, r, (j, w)로서 똑같은 체계가 된다.

원시일본어의 자음체계 역시 p, t, c, s, k, h, m, n, r(w, y, ')이다.

종성은 현대에는 음운적으로 음절말음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독립의 성절음으로 특수음소 /N/, /T/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이 음성적으로는 p, t, k, s, m, n, ŋ으로 실현된다. 북해도 방언은 이러한 종성이 ŋ을 제외하고는 음운적으로 대립되는 언어이며, Sakhalin방언이 그것이 현대일본어처럼 中和되어 있는 언어이다. 어느쪽이 古形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어에서 대립되고 일본어에서 中和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해도방언 쪽이 古形이라고 하겠다.

현대일본어가 음성적으로도 종성 -r가 실현되지 않는 게 특색이다. 아이누어에서는 r가 초성과 종성에 쓰일 뿐만 아니라 어두에도 쓰이는데, 한국어는 초성과 종성에 쓰이면서 어두에는 안 쓰이고 일본어는 초성에만 쓰이고 종성에도 어두에도 안 쓰이는 것을 보면 이 세 언어의 언어 分化의 단계적 양상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하겠다.

일본어도 음절구조는 원칙적으로 cVc구조이다. 현대일본어는 음운적으로 cV구조를 골격으로 해서 종성의 c를 따로 成節음운으로 해서 1mora로 헤아리지만 어중 重子音의 실현은 그 구별에 난점을 가져온다. 이러한 cVc구조의 탓으로 해서 아이누어, 한국어와 함께 음절경계에서의 자음접현상, 상호동화현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

4.3. 알타이어

주로 몽고어의 자료에 근거하여 이룩한, Ramstedt, Poppe(1965: 197), Shindler(1966)등의 알타이어 자음체계를 참조하면(cf. 김공철 1997) 저해음의 유성음 계열을 빼고, p, t, k, c, s, m, n, l, r가 된다. l과 r는 나중에 합류된 것으로 보면, h가 없는 것 이외에는 아이누어, 한국어, 일본어하고 일치한다.

이들 9자음은 Patrie(1982, 54~55, 111)에 의한, 원시알타이어와 아이누어와의 대응표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와의 대응표에서도 확인된다. 알타이어 l 그리고 r과의 한국어·일본어의 대응은 Miller(1971:114,146), 김공철(1997)에 의하였다.

원시알타이어	Ainu	Kor.	Jap.
*p	p>∅	p,č	p
*b	w>∅	m	m
*t	t (č/_ [i])	t,č	t
*d	t		
*j	y	č	
*k	k	k,h	k
*g	h>∅	s	
*s	s	s,č,h	s
*č	č	č,p	t
*y	y	y	y
*m	m	m	m
*n	n	n	n
*ń	n		
*l ₁	r	r	r
*l ₂	s	r,s	s
*r ₁	r	r,č	r
*r ₂	r	r	r/t

5. 맺는말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누어의 자음은 초성체계든 종성체계든 원래의 한국어, 일본어의 것하고 격차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모음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자음도 안정적인고 고착적인 특성을 지녀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곧 계열적으로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서열적으로 무성·유성의 대립 여부하고 유기·경음의 분화 여부의 차이이다. 그것도

고대에 소급하면 그런 서열상의 차이는 없어진다. 오늘의 아이누어의 체계는 원시한국어, 원시일본어, 원시알타이어의 자음체계 그대로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필자가 가정하는 이들 언어의 동계성에 대한 하나의 증표를 보태주는 것이 된다.

아이누어 자음에서 특이한 것은 어두에 r음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r음의 음성적 특징으로 보거나 종성에서의 t/r 교체를 볼 때 t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어에서의 東國正韻序에 보이는 以影補來의 기술이 한국어의 r가 t의 弛緩性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단인 것처럼 아이누어도 같은 연유로 명사, 용언 등에서 t/r 교체가 자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어도 한국어처럼 어중에서의 초성으로의 실현은 있으나(어두에는 없다) 종성으로서는 한국어 한자음의 r종성이 -t음으로 반영되어 r종성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한자음에서는 中國原音が 보존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한자음의 경우고 한국어의 고유어의 관형형어미 -r는 개음절화되어 -ru로 반영된다. 아이누어가 비음의 ŋ음이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특색이다. 현재의 한국어와 일본어는 존재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한일 두 언어도 ŋ음이 존재했다는 확증은 없다.

북해도 방언에서 종성 위치에 p, t, k가 나타나는 것이 Sakhalin방언에서 이들이 북해도 방언에 없는 x로 中和되는 것도 특이하다. 여러 가지 음운현상을 미루어 북해도 방언 쪽을 古形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喉音이론과 관련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Sakhalin방언에서의 어말비음 n, m, ŋ이 후속하는 음성환경에 동화되는 듯 싶은 현상이 있는데, 이들은 마치 일본어에 있어서의 /N/ 특수음소처럼 동일 음운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 한국어의 저해음 종성이 일본어에서 中和되듯 북해도 아이누어의 그것이 Sakhalin방언에서 中和되는 것 같아서 언어 分化의 한 패턴이 엿보이는 듯하다.

아이누어의 음절구조는 최대한 cVc구조이며 이는 한국어도 마찬가지다. 일본어의 경우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음성적으로 cVc구조가 실현되는 것은 확실하다. cVc구조의 일관성을 위해서, 제로초성, 제로종성, w·y종성의 해석이 있게 된다. 종성을 제외한 cV의 음절표는 거

의 완벽하다. 음성적으로 실현이 불필요한 wu, yi가 공백이 되어 있고, ti는 구개음화로 ci로써 매워져 있다. 다만, wi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한국어의 cV음절표는 wu, yi, wo(wə는 가능)만이 공백이다. 이에 비해 일본어는 ti, tu, ca, ce, co, wi, wu, we, wo, yi, ye는 실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대에는 역시 wu, yi말고는 거의 실현되었다.

결국, 아이누어의 자음은 단선적이며 간단하다. 그것은 원초적인 자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의 한국어, 일본어의 옛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공철 “원시한·일어의 연구 - 공통기어 설정을 위한 -”, 서울, 한글 168호, 1980.
- _____ 魏志東夷傳倭人條に現われる國名についての一考察, 서울, 韓國外國語大學大學院, 1981.
- _____ 원시한일공통어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5.
- _____ “아이누어의 모음에 대해서 - 韓日語와 관련하여-”, 공주, 웅진어문학 4, 1996.
- _____ “韓日語와 알타이어와의 자음대응”, 서울, 勝山鄭致薰教授定年退任記念論文集, 1997.
- 淺井亨 アイヌ語の文法-アイヌ語石狩方言文法の概略, アイヌ民族誌, 東京, 第一法規出版, 1969.
- 萱野茂 アイヌ語辭典, 東京, 三省堂, 1996.
- 金田一京助 アイヌユ-カラ語法摘要, アイヌ敘事詩ユ-カラの研究 2, 東京, 東洋文庫, 1931.
- _____ アイヌ語學講義, 金田一京助選集 1, アイヌ語研究, 東京, 三省堂, 1970.
- 金田一京助・知里眞志保 アイヌ語法概説, 東京, 岩波書店, 1936.
- 田村すず子 アイヌ語沙流方言辭典, 東京, 草風館, 1996.
- 中川裕 アイヌ語千歳方言辭典, 東京, 草風館, 1995.
- 服部四郎 アイヌ語方言辭典, 東京, 岩波書店, 1964.
- _____ “アイヌ語の音韻構造とアクセント”, 東京, 音聲の研究 13, 1967.
- Batchelor, J. An Ainu-English-Japanese dictionary, Tokyo, Iwanami-syoten, 1905.
- Miller, R. A. Japanese and the Other Altaic Language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Patrie, J. The Genetic Relationship of the Ainu Language, Hawaii,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2.
- Peng, F.C.C. A Note on Hokkaidō Ainu Morphophonemics, *Studies in Linguistics* 21, 1969-70.
- Poppe, N.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1965.
- Refsing, K. The Ainu Language, The Morphological and Syntax of Shizunai Dialect, 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1986.
- Shindler, J. Zur japanisch-altaischen Verwandtschaft hypothese, *Beiträge zur Japanologie* 3-1, Wien, 1966.
- Simeon, G. J. The Phonemics and Morphology of Hokkaido Ainu, Doctoral dissertatiou,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iichigan, Ann Arbor, 1968.